

**당신이 접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투자기회
(22%, 23%, -40%, 68%, 43%)**

1st Story

세계 최고의 투자펀드

[세계적 펀드 After코로나 방어수익률 2021.1.1.~2024.2.27.]

- ARKK (캐시 우드)
-24%(21년), -67%(22년), +67%(23년), -3.5%(24.1.1~3.21). **●39개월 (-)59%**
- Tiger global Growth(간판헤지펀드, 체이스 콜먼)
-7%(21년), -56%(22년), +29%(23년), ?(미공개) **●36개월 (-)47%**
- Bridge water Pure Alpha(간판헤지펀드, 레이 달리오)
+7.8%(21년), +9.4%(22년), -7.6%(23년), ?(미발표) **●36개월(+)8.9%**
1991~2022 연평균 11.4% 야후 파이낸스 2023.12.13 야후파이낸스 기사.
- Omaharyu / Alpharyu 투자조합 그룹(류종현 대표)
+23%(21년), -40%(22년), +68%(23년), +43%(24.1.1~3.21) ●39개월 (+)77%

※ 위 수치는 블룸버그, 모닝스타 자료 기준.

※ 2023년 ARKK 67%는 업계 1% 성과, 2023.1.28. Financial Times 기사.

※ 버크셔는 생략 (버핏, 산업대전환이 싹튼 90년대 중반 기점으로 통찰력 약화)
버크셔 30년간(1994~2023) 연평균 9.59%, 2023.12.22. 배런스 기사.

- 2022년 기말 대비 2023년 기말은, 코스피 19%, 코스닥 28%, 다우 13.7%, S&P500 24% 상승했습니다.

동 기간 모닝스타에서 미국 전체 액티브펀드를 세 가지로 구분한 결과, 평균 14%~34%, 대체로 21% 정도(2023년도 성과) 상승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주요 14,000 액티브 펀드를 분석한 결과, 종합주가지수(BM) 대비 오히려 (-)2.4%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종합지수수익률-액티브펀드 수수료율=액티브펀드 수익률. 역시 시장평균 하회가 정상)

우리 투자조합법인의 2023년 68% 회복력은 세계 주요 펀드 탑 1%이며(파이낸셜 기사, 67%가(아크 성적) 펀드 상위 1% 이내의 실적),

타이거 글로벌과 아크 등 특히 2023년 성과가 탁월했던 세계적 성장주 펀드들과 비교할 때, **2021년, 2022년, 2024년(~현재) 실적까지 모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꾸준히 앞섰던(덜 내려가고 더 올라가고) 점으로 보아, 우리 투자법인의 성과는 세계 0.5% 이내입니다.**

※ 2021년 글로벌 헤지펀드 평균 수익률은 참고로 -6%입니다. (중국 시진핑의 민간 IT기업 탄압으로 이머징과 일부 글로벌 기술산업들은 2021년 7월 이후 무너지기 시작)

2nd Story

이야기를 하기 전에

- 하루하루, 한 주, 한 달, 일 년내내 아니 수십 년간 제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자영업을 하시고, 노동하시고, 출근하시는 대부분 사람들의 노고를 알고 있고, 또 그런 위대한 대부분 사람들의 노력과 기여로 인해 사회기반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있고, 그 시스템 덕택에 조금은 더 특별하고 좁은 영역의 재능을 가진 이들, 즉 수영선수, 미술가, 영화배우, 투자자 등이 자신의 부문에서 노력을 하고 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저 역시 최고의 투자통찰력을 가진 투자자로 전진하기 위해서, 마치 공기같은 사회기반시스템의 덕을 보았지만(제가 내전 중인 아프리카 빈국에서 태어났다면 힘들겠지요), 쉽게 모든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닙니다.

제 재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덜 되는(손해가 되는) 유아청소년기까지의 과정을 지나, 대학시절부터 시작된 성인기에도 우여곡절, 노력과 우회적 과정을 통해 재능을 뒤늦게 깨닫고 고속으로 꽃피우면서 현재까지 걸어오고 있는 것이지, 금수저도 아니고 커리어 측면에서 처음부터 비단길 투자자의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 자료의 내용을 읽으실 때, 제 태도가 자신의 잘난 점을 늘어놓는 거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내공과 재능과 성과를 여러분께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신뢰할 만한 수준의 투자운용자인지를 전혀 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남보다 탁월하거나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나갈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에게 나를 처음 알리는 이번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소탈해보이지 않겠지만, 사실 공동주주로서 투자동반자가 된 후에는 주주와 저 사이의 눈높이를 달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풍경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만으로 이런저런 수다를 떨 수 있는 소탈한 사람입니다. (물론 산업이나 기술, 종목추천은 지구상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이해, 양해해주시고 이하 자료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바꾸고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3rd Story

나의 독백

■ 사회과학과 테슬라

- 개인과 집단의 행동 방향을 잘 파악하려면, 1차로 그들 사이에서 파장같이 후행하는 상호작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2차로 상호작용이 역으로 그들의 본래 행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시스템적 사고는, 복잡계 관점에서 인간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 사회시스템적 사고는, 투자자가 한 기업의 장기 성패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기업과 수요층/정부와 산업계/기업간 경쟁역학/기업간 협력 및 위탁관계 등, 사업환경분석을 위한 필수적인 사고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컨대 왜 글로벌 메이저 완성차제조사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시스템을 전적인 운영체제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 피터 번스타인 그리고 영원히 완전해지는 통찰가

- 피터 번스타인은 '우리는 결코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없고, 항상 어느 정도는 무지한 상태로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확실성을 포함시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 장기적, 반복적, 높은 성공확률의 투자의사결정을 내야만 하는 나의 기준목표이자 명심할 점은,

'세계 최고의 투자통찰력을 지향하지만, 세계 최고에 도달한 바로 그 어느 날에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임에 수반하는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지구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자신의 탁월했던 이전의 판단, 심지어 과거 성공을 안겨준 일부 사고체계도 혁신(살가죽까지 바꿀 정도의 큰 변화와 개선)할 수 있는 현자만이, 선입견과 매너리즘을 뚫고 세상의 본질적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 안전지대와 데이터 함정 1

- 버핏은 안전지대(아는 영역)에 머무르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950년 당시 미국의 현대산업을(은행, 식음료, 신용카드, 석유 등 에너지) 이해한 후, 버핏은 해당 산업군에만 지금까지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중후반 즈음, 해당 산업들의 생명력보다 부식력이 두드러진 변곡점 이후, 2023년 기말 기준으로 과거 30년 연평균수익률이 10%에 못 미칩니다.

글로벌 주력산업들이 완전히 파괴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2024년에도 버크셔의 포트폴리오는 은행, 식음료, 신용카드, 석유 등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 물론 IT기업 애플이 딱 하나 있기는 하지만(스노우플레이크 등 두어 개의 0%대 비중 신산업 종목들은 버핏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또 편안해하지도 않음), 버핏의 애플 투자는 필수소비재 스마트폰과 하이엔드 선호브랜드 애플이라는 '실물 제품'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것이며, 4차 산업시대의 기술 시나리오 상에서 애플의 비전을 검토한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플마저도 미래 시나리오 비전과 시장개척 면에서, 생명력보다 부식력이 부각되는 성숙기 기술기업에 가깝습니다.

■ 안전지대와 데이터 함정 2

- 건너편 어두운 곳에서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이, 한밤중에 밝고 가까운 바로 앞의 가로등 아래에서 오래도록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왜 건너편이(열쇠가 있는 곳) 아니라 여기서 열쇠를 찾는지 물었더니, 그 사람은 '저기는 아무 것도 안 보이고 여기는 밝으니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함정입니다.

- 장기 기업성장에 따른 주가상승을 노리는 수익성장 가치투자자라면,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속도로는 증가하는 분야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버핏의 안전지대는 수익력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과거로부터 익숙한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자신의 안전지대에 중~고부가 산업을 포함시키고 탁월했던 실적을 바탕으로 신격화된 버핏이지만,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버핏의 안전지대는(투자산업군) 수익성장력이 쪼그라들어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약점이 되었으며, 그 증거는 30년 연평균복합수익률 9.6%입니다. (부가가치 확대산업이 아니라 익숙한 정체산업에 머무름)

- 부가가치를 뺏기고 흡수당하는 분야에서 나와서, 가장 큰 부가가치가 생성되고 있고 생성될 주요 분야들을 반드시 자신의 아는 영역으로 편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당대 최고 과학자 뉴턴 이야기

- 케플러 '행성운동법칙'과 갈릴레오 '낙하물체의 가속도'는 파편적 이론이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뉴턴은 당시 암흑에 가려있던 그 다음 단계의 법칙을 추론하여,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찰해냅니다.
주어진 정보 속에서 미지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 몇 명 이내입니다.

- 미래까지 유망한 장기 성장기업을 보는 눈도 이와 같습니다.

한 시기에 최고의 여러 미래성장기업들을 가려내고, 또한 가속적 기술/산업변화를 주기적으로 통찰하고 새로운 최고의 파괴적 미래챔피언들을 가려내는 과업은 지구상 몇 명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계최고 80여 헤지/펀드 포트구성을 내가 봤을 때, 정말 몇 명 미만이었습니다)

- 조심스럽지만, 우리에게는(당신과 나) 운이 좋게도, 그 몇 명 안에 내가 들 것 같습니다.

4th Story

당신의 이야기

■ 가장 현명한 1회성 투자자 당신의 스토리

- 스스로가 세계적인 수준의 통찰력을 가진 투자자가 아니라면(지구상에 몇 명 없습니다), 가장 만족스럽고 자랑할만한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당신께서 직접 투자해보니 아무리 종목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20년 평균수익률이 크게 만족하고 자랑할 수준이 아닌데, 전체 수익률을 좌우하지는 못해도 어쩌다 몇 배로 주가가 올라 매도한 비중 작은 종목들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1950년대의 워런버핏을 알아볼 눈과 투자할 기회를 잡아서 그 때 투자했던 전설적인 오마하의 천만장자들(오마하에서도 무명이었던 버핏을 일찍 알아본 수십 명)이 된 후, 당신이 진정 현명한 투자자였다고 자랑하는 것일까요. (질투를 불러일으키므로 오히려 자랑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 결국 주인공은 당신과 나, 우리.

- 나 류종현 대표의 이번 평생 카르마는(20대에 일찍 업을 찾지 못한 것이 한이지만, 대기만성도 좋습니다) 압도적인 지구제일 통찰 투자가입니다.

- 당신의 이번 생의 카르마는 어쩌면 가장 현명한 1회성 투자자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전문가, 미국 등 글로벌 투자대가, 혹은 류종현 대표 등 어떤 대상에게 투자를 하건 간에 최선의 투자대상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제 두뇌보다 더 나은 미래투자대상이 없을 것이고, 지금 당장 증명하기는 애매하지만 몇 년 내로 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2020년부터 8~9년 정도 누적실적이면 세상에 증명할 만 하지요) 21세기 지구의 투자기회로는 제 두뇌보다 더 나은 투자대상이 몇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저만의 즐겁고 도전적이고 현실적인 장기목표입니다.

- 여러분과 공동주주가 되는 나와, 내게 투자한 여러분 중 누가 더 가성비 좋은 현명한 투자자일까요. 아마도 1회성 투자로 모든 것을 해결한 당신일 겁니다.

5th Story

알파류빌리지 그들 이야기

- 최초(1호) 투자조합법인부터 3호 법인까지 출자한
주주들이야말로 진정한 현인들입니다.

젊은 시절 버핏의 미래가치를 현재 구현할 수 있는 투자자
류종현을 선택하는 안목을 보여준 그들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일부 실어볼까 합니다.

- 김O준, 2호 법인 주주이자 1호 법인 주주의 친구.

COVID-19가 전 세계의 경제환경은 물론 온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두 해가 지나고 있다. 그 두 해 동안 지구의 모든 것들은 억겁의 시간처럼 느리게 흘러갔으나 한편으론 찰나의 순간처럼 많은 것들이 급격하게 바뀌어 버렸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혼돈과 급격한 변동의 시기에, 그저 좋은 친구 하나 잘 둔 덕분에 내가 '오마하류 투자법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나는 내 앞에 놓인 모든 걱정을 뒤로 하고 내 삶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치 마술처럼 말이다.

※ 추신 : 만약 내 인생의 후반부가 '오마하류 투자법인' Magic을 통해 드라마틱하고 아름답게 바뀐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친구 '정균' 덕분이다.

Thank you my friend!

- 김오우, 본인과 가족이 1호, 2호, 3호 법인 주주.

2년 전 류종현 대표의 투자조합 참여 기회는 갑자기 찾아왔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나의 개인적인 준비시간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투자 능력과 시장을 바라보는 비범함, 저술과 교육경력은 이미 지난 십수년간 증명되어 있었고, 농축되어 준비된 '오마하류 투자법인'의 투자 계획은 광범위하면서도 치밀했고 자신감과 신중함이 공존했으며, 주주가 되어야만 할 매력적인 요소가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실적과 신뢰로 다시 수년이 지난 지금, 미래의 '글로벌 투자대가'와 함께 하는 기회를 얻는 '현명한 투자자' 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 석O식, 1호 법인 주주이고 가족이 2호 법인 주주.

워런 버핏! 세대,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현자이시고 그분이 행하고 현재까지 회자되는 실력과 실적, 초기 투자조합에 투자했던 그의 이웃, 지인들의 전설적인 수익률을 보면서 엄청, 많이, 정말로 부러워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는 이런 귀인, 기회가 없을까!

하지만 류종현 대표이사의 오마하류 투자법인으로 그 꿈을 이뤘습니다. 만약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동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국내외 주식과 코인투자 등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하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 윤O호, 본인과 가족이 1호, 2호, 3호 법인 주주.

류종현 대표와 오마하류 투자법인을 알게 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수확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 기하급수적인 실적을 보이는 흔치 않는 투자대상을 알게 되고, 둘째 최종적인 투자의사결정까지 내리는 것은 운과 노력 모두가 결합되지 않으면 이뤄지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마하류 투자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젊은 시절의 버핏에게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장O식, 1호 법인 주주이고 친족이 2호 법인 주주.

수년 전 류종현 대표이사의 첫 저서 <대한민국 주식투자 완벽가이드>를 접하고 투자에 대한 그의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당시 그 책은 내게 투자자의 자세와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체계를 확립하는데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2019년 11월 오마하류 투자법인 1호의 주주가 되었고, 2021년 초에 2호 법인을 친족들에게 소개한 결과 그들도 주주가 되기로 결정하고 주주가 되었다.

6th Story

우리의 미래를 위한 당부

- 스타벅스, 에스티 로더 스토리(잡지 못한 기회)

스타벅스 창업주 하워드 쉘츠가 처음 이탈리아식 커피전문점을 창업했을 때, 242명에게 투자를 권유했지만 217명이 <노>라고 답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때 <노>라고 하지 않은 25명은 모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글로벌 명품재벌 에스티 로더 역시 한 미용실에서 크림 형태의 화장품을 팔면서 신화는 시작되었고, 그녀는 인생이 세일즈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 워렌버핏과 류종현(아시아 No.1. 캐피털리스트) 스토리

워렌버핏에게 처음 투자조합의 자금을 맡긴 오마하 시(네브라스카 주)의 초기투자자 7명과,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초기 12명의 주주들은 모두 천만장자 이상이 되었지만, 당시 오마하 시민들 거의 전부가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수많은 이웃들과 지인들이 워런을 무시하고 허황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투자조합법인을 주주들과(8년간 지켜봐온 가치투자 수강생들과 독자들, 이후 그들의 친구/친척들이 연이은 투자자들) 공동설립했으며, 1년 단위 공식수익률로, 2020년 22%, 2021년 23%, 2022년 -40%, 2023년 68%, ~올해 3월 21일까지 4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발 두 번의 큰 폭락을 이겨낸 것을 감안하면, 이는 향후 10년마다 5~6배, 30년 간 200배 이상의 수익률이 누적될 신화의 시작입니다.

- 저는 글로벌 최고 성적을 내는 80개 대형 헤지/펀드 포트폴리오를 1년에 몇 번 참조하면서 그 최고운용자들의 머릿 속을 봅니다. 전기를 통해 위인과 대화하듯이, 포트폴리오를 통해 운용자와 대화하는 거지요.

공부도 되고 재미는 있지만, 제 머릿 속보다 더 나은 사고구조와 판단결과를 자랑하는 펀드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는 개인투자조합법인 4호와 증여용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8년~10년 정도의 탁월한 누적실적이면(2020년부터 시작됨) 사실 어느 지역(국가, 세계) 레벨에서건 주목받기에 충분합니다.

다시 없을 당신의 투자기회를 잡으면서, 지구적 투자거인이 탄생하는 과정의 이익을 누리는 초기투자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7th Story

통찰가의 점심경매와 엑시트는 없다

- 저는 종목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의 종목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통찰을 거쳐 선정된 결과물이며, 마치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값지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말하자면, 가족과 친구는 물론, 주주에게도 밝히지 않습니다. (버핏 전기를 보면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버핏이, 캐시 우드가, 대부분의 대형 헤지펀드 대표운용자가 그러하듯이 자신이 어떤 기업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밝혀 주가를 끌어올릴 정도의 발언권이 생길 운용규모가 되면(한참 후의 이야기입니다만), 저와 주주들의 공동이익인 수익률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적시에 공개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저는 점심경매 따위 하지 않습니다.

(투자노하우, 종목 등 아무 것도 안 알려줄 것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기는 싫군요)

버핏은 점심경매로 좋은 자선사업을 했지만, 사실 낙찰자에게 별 조언을 해주지 않으면서 버핏과 점심을 먹었다는 타이틀 제공만으로 낙찰자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게 합니다. 주로 운용자들이 경매에 응하며, 운용자들이 버핏과 점심식사 동안 뭔가를 깨달은 척 하면서 자금을 더 모읍니다.

수백 조 운용을 하는 버핏이 십 억 단위에(버핏 점심 경매낙찰금) 노하우를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알려준다면 그는 현인이 아닙니다.

제 지혜, 직관, 통찰력에 국한하더라도 지금 십 억 단위에 지혜의 파편, 백 억 단위에 지혜의 전모를 알려주기엔 제가 너무 손해인데 말이죠.

- 석권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의 총 가치, 그 분야에서 차지하고자 하는 점유율이나 위치를 계산한 후, 자신의 사업가치를 평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처기업가들한테 좋은 아이템을 쉽사리 팔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글 창업자들이 초기에 100만 달러로 자신의 검색프로그램을 팔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저는 미래에 상장사 인수 후 확장하거나, 글로벌운용 주체들과 파트너가 될 지언정 엑시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주기적인 트렌드 파악, 인간심리와 사업의 속성에 대한 누적적 지혜, 투자분석 과정과 통찰력 증대의 과정 등 하여간 이 모든 사색의 과정들이 너무 즐겁기 때문입니다.

● 왜냐하면 ●

최고의 투자 통찰력을 쌓아나가고 그 과정에서 최고의 장기수익률을 유지 및 개선하면서도, 일 년에 한 달 이상 생각주간을(라운지 독서, 수영과 독서, 쇼핑과 독서, 산책, 골프, 쇼핑몰 관찰도 많이 합니다, 물론 산업/기업 분석도 충분히 즐깁니다) 가질 여유가 있는, 그리고 그 생각주간들이 일상생활에 굳은 제 어깨와 머리에 더 힘을 빼고, 보다 본질적인 사고체계로 더 가볍게 올려줄 수 있는 지금의 이 인생에 만족하거든요.

저는 최고가 되고,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영원히 인지하면서, 또한 최고를 유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감안하면 펀돈에 해당하는 현재의 떼돈을 한 번 벌고 엑시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영원히 점점 더 큰 돈을 벌고 더 큰 돈을 쓰는 즐거운 투자거인이 되려고 합니다.
저와 주주로서 투자파트너가 되어주지 않으시렵니까?

8th Story

**어린 시절 재능까지 알아야만
튼튼한 분들을 위해**

- 초등학교 시절(아마도 3~4학년), 선물받은 지구본을 관찰하다가 대륙들의 경계면이 대략 서로 퍼즐처럼 맞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의 대륙이 회전하는 형태로 확장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은 후, 성인이 되어 세계최초로 이것을 증명하고 유명인이 되겠다는 발칙한 생각을 했으나, 수 년 내로 교과목에서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을 배우고 실망했습니다.

-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아마도 5학년), 당시 선생님이 책에 있는 멜서스의 인구론을 설명하면서 식량과는 별도로(식량은 해결되고 있지만), 세계인구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석유고갈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 생태계의 자연적 균형 개념을(늑대와 사슴 사례, 시간을 두고 상호작용을 거쳐서 균형상태로 돌아가는) 배운 후인지라,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지고 사람들의 개인주의가 더 심해지면, 개개인은 출산보다 개인의 자유와 삶을 더 중시하면서 세계인구는 점차 증가를 멈추고 언젠가 줄어들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런 직감적 결론은, 마치 개미 개체의 뇌는 단순하지만 개미집과 개미집단은 매우 복잡한 것처럼(마치 개미집단의 뇌는 하나의 고등동물인 것처럼), 특별한 의도가 없는 개인들의 개인주의 선택이(개인의 뇌) 모여서, 마치 전체 인류의 거대한 뇌작용으로 지구 인구를 줄일 것이라고 비유적 연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 매년 서울대 30명 정도를 진학시켰던 대구 최고 명문고 경신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자마자 교내 수학경시대회가 열렸는데(매년 두 번 열림), 경신고 설립 이후 최초 만점자였습니다. (94년도 입학 및 학교 역사상 모든 지난 학생들 중 최초 만점)

또한 이후 수학풀이과정을 칠판에 적게 시킬 때마다, 수학선생님은 저걸 저렇게도 풀 수가 있구나, 다른 학생들은 저렇게 하지 말고 해답의 풀이대로 따라해라, 저건 류종현만 할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고교 1학년 겨울방학 때 1주일만에 고교 2학년 수학 전체 예습을 끝내버리기도 했습니다.

- 고교 1~2학년 때(대구 경신고는, 전교 상위권 등수 학생들을 우수반으로 모아서 수업을 했던 사립고), 수업시간 중 물리 선생님이 갑자기, 우주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우주에 끝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그 이유까지 누가 말해보라고 질문했습니다.

전교 50등까지 모아놓은 그 반에서 아무도 손을 들지 않길래(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아직 그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제 방식의 사고과정을 끝낸 제가 손을 가볍게 들고, 당연히 우주에 끝이 있지요, 선생님이 방금 확장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계가 있어야 개념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라고 대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리선생님이 토끼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모든 지적 재능이 현재 투자를 위한 사고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고교2학년과 3학년 연속으로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께서 수업중, 너희들 중에 전교에서 제일 아이큐 높은 150대가 있다. 그런 줄 알아라고 두어 번 얘기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 네 머리가 제일 좋다는 소리를 선생님들로부터 들어왔기에(아이큐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걸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능을 치른 후 그 점수로 이제 대학을(서울대) 지원할 때가 되어서야 선생님이 제 아이큐테스트 결과지(당시 사립고인 경신고에서는 전교생이 아이큐테스트를 진행했었음)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153이라는 제 아이큐 숫자를 태어나서 그 때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자만하지 말라고 그간 보여주지 않았고, 서울대 지원할 정도보다 머리가 더 좋으니 떨지 말고 자신있게 논술 및 면접을 보라고(저는 97학번이며 대학교에 따라서 논술시험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제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본을 맡길까 말까 가늠하는 이 사람은 일단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 점은 밝히는 편이 좋겠습니다.

- 너무 어린 시절은 산만해지지 않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성인기 이후

약력, 증명, 자격, 저술, 직책, 교육 등
투자관련 내용

Who is 류종현 대표?

[經歷]

2022년 5월~현재 (주)알파류인사이트40 대표이사 (3호 법인)
(주주투자 목적법인 3개, 리서치 및 교육출판법인 1개 운영 중)

2021년 3월~현재 (주)오마하류스노볼밸류 대표이사 (2호 법인)

2019년 12월~현재 (주)오마하류글로벌스노볼리서치 대표이사 (1호 법인)

2011년~현재 (주)한국주식가치평가원(KISVE) 대표이사,

2010년~현재 수석 기업가치평가사 (2010년 전문가자격 취득. 역대 최고점수로 수석 - CAPM 이론의 오류 개선), 수석 M&A 매니저(해당 기수 수석, 밸류에이션 전문), 경영 컨설턴트 자격 등

2017년~2019년 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 초대 고문(주식가치평가)

2012년~2019년 가치투자자협회 부회장,

2011년~2015년. 주식가치평가사 민간자격증 설립 및 발급자(2011~2015), 교육 및 저술 : 가치평가 이론/시험출제/자격증 발급.

2010년~2011년 (주)한국투자교육연구소 초대 연구과장(애널리스트, 투자교육 강의),

~2010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R&BD센터 투자평가매니저(금융투자, 바이오, IT 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졸업(사업가, 임원 네트워크 19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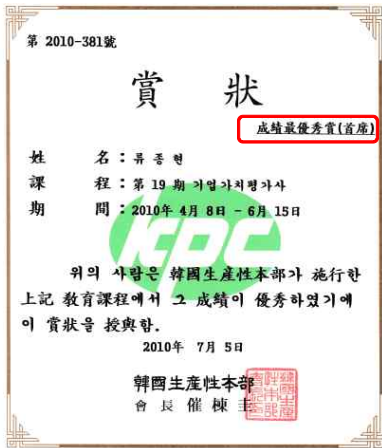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졸업(97학번), 투자론 등 경영학과 전공 다수 수강.

대구 최고 명문 경신고(서울대 30명 진학/연간) 설립역사상 교내 수학경시대회 최초 만점(94년도)

[著述, 放送]

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 'Stock Master' 특임교수, 투자자교육협의회 주식가치평가 초빙강사

Founder 류종현 대표이사 (Asian No.1. 학습기계 투자통찰가)



Founder 류종현 대표이사 (Asian No.1. 학습기계 투자통찰가)

추천서

저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류종현 연구원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금융전문인력대상의 기업가치평가사(제19기)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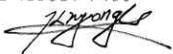
류종현 연구원은 기업가치평가 전문영역에 대해 여타 금융권 전문종사자들보다 이해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날카로운 질문 등을 통해 강의의 긴장도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프로젝트 발표 때에는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그 동안 쌓아온 탁월한 실력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결과 과정 종료 후 평가시험에서는 역대 최고점수로 수석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으며, 류종현 연구원의 실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제19기 기업가치평가사 과정을 훌륭히 수료하여 "기업가치평가사"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입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종현 기업가치평가사는 기업가치평가 실무활동 및 이에 기반한 투자 강의 등을 하는 데 있어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다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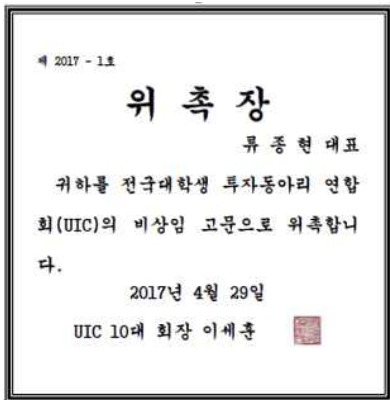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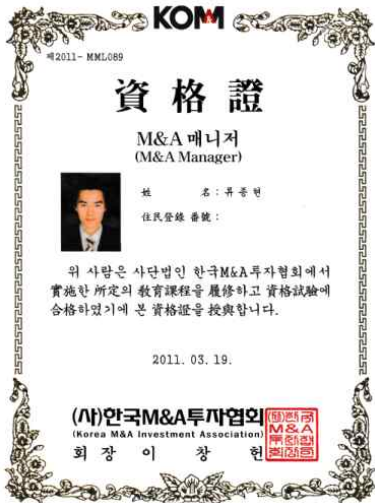
2010. 7. 10.

경영학박사 김종일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미국선물거래사
前 굿모닝신한증권 기업금융본부 수석팀장



김종일 경영학 교수 주요 직책(현)

- 산업통상자원부 KPC 기업가치평가사 주임교수
- 한국상장사협의회 위원
- (사)한국M&A컨설팅협회 수석자문위원
- (사)한국기업평가원 수석자문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원
- 한국전력공사 매각심사위원회 위원
-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



Founder 류종현 대표이사 (Asian No.1. 학습기계 투자통찰가)

류대표 저술 - 실전가치투자를 위한 기본체계, 지식, 전략서



평가원(KISVE)의 성공가치투자체계 교육



1. 정통 재무분석 완성 과정
2. 정통 기업분석 완성 과정
3. **주식가치평가** 종합완성 과정
4. **가치투자운용** 전략전술 과정



[동영상DVD와 동일한 커리큘럼의 이전 오프라인 교육현장]

류종현 대표의 성공가치투자체계 교육

"어느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것이다.
 더욱 축복받는 것은 그 정상에 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과 투자업계 임직원들이 류대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는 것이다."

가톨릭대 경영학부 김종일 교수
 (한국기업평가원 수석지문위원, 한국/미국공인회계사, McKinsey Valuation 대표역자, 前 굿모닝신한증권 수석팀장 등)

"지금까지의 주식투자 및 가치평가 교육 중 수준과 내용, 모든 면에서 최고이다.
 최고 전문가의 강의로 가히 성과를 담보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 임상을 상무

"KISVE의 투자교육으로 당신의 투자실력은 매우 탄탄한 기본 위에서 노도광풍처럼 성장할 것이다."

하이투자증권 파생상품운용부 박형민 이사

"투자실패의 근본적 원인을 알고 싶다면 류대표의 실전투자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최병주 이사

"전문적인 주식(기업)가치평가를 정통으로 배우려면 필히 류대표의 투자교육을 받아라. 다른 곳을 찾는 것은 시간낭비다."

이스트브릿지 파트너스 김기현 상무

"개인투자자들이 기관투자자 이상의 투자체계를 체계적으로 쉽게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주식가치평가원 류대표의 강의 외에는 없다."

유리자산운용 펀드매니저 이은원 과장(前 VIP투자자문)

"공인회계사조차 인정하는 IFRS 최고 전문가인 류대표님의 강의에 집중하라."

*양원모 공인회계사(서울기술투자 투자부문 팀장, 前 이상기술투자 투자팀장)

"류종현 대표님의 강연은 기업가치 평가와 IFRS의 깊이 있는 실전문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현명한투자자들의모임 구도형 대표(대한민국 교수분석 좋은스펙)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기다려온 완벽하고 수준높은 최고의 실전 커리큘럼으로 국내에서 공히 독보적이다."

한국감정원 기업가치평가처 박재홍 차장

"어느 열매가 달지 만 달지 판단하는 도구는 오직 오직 KISVE에서만 찾을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산업전략실 인현섭 선임연구원(前 ADL 컨설팅 계열 선임컨설턴트)

"실전과 이론을 정통으로 섭렵한 류대표님의 강의는 주식투자자들에게 정말 강력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SNU VALUE(서울대 투자동아리) 前 회장 황인혁

Last Story

알파류 투자법인 설명회 초대장

일정 : 4월 27일 토. 3시/30분~5시
장소 : KTX서울역(기차역) 4층 대회의실

■ 피해야할 투자설명회는 그럴듯하고 재미있고 선물을 주는 곳.

- 세상에 많은 사기꾼들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혹할 수 있는, 너무 쉬운 투자기회, 너무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정말 좋은 투자기회는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고 쉽게 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으면 1950년대에 미국인들, 아니 최소한 오마하시의 시민들은 너도나도 버핏에 투자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버핏이 투자설득을 해서 거절당한 적이 너무나 많고, 이웃집 코카콜라 직원, 동네 치과의사 등은 버핏을 못 믿을 젊은이, 허풍선 젊은이로 무시했습니다. (당시 미 소도시 중상층에게 가치투자 복리수익은 어려운 개념)

- 세상에 많은 사기꾼들은(을) 투자설명회 청중에게(갑) 귀한 선물들을 자꾸 줍니다. 선물세트를 주기도 하고 한우세트를 주기도 하고 하여간 손에 가득 담아줍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투자기회는 투자운용 주체의 실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을이 아니라 갑이며(오히려 기회를 잡는 청중이 을), 아무 것도 주지 않고 설명만 합니다.

■ 이제 당신은 알파류투자법인 투자설명회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수십 년 전 버핏이 초기 투자조합 자본을 동분서주 모을 때처럼, 수십 년 전 하워드 쉘츠가 스타벅스에 초기투자를 구할 때처럼, 진짜 투자기회설명은 재미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보이는 능력/실적 대비 너무 자신감이 넘쳐 허황된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내실에 비해서 아직 성과가 없고 허름한 당시 위 두 사람이, 어떻게 미래 자신의 확실한 성장능력을 대부분의 청중에게 확신시킬 수 있을까요. 애초에 청중들 중에서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된(태도, 지혜, 경험 등 그 어떤 측면이든간에) 능력자여야 이해할 수 있고, 또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당신께서는 여기까지 재미없는 스토리를 읽어내셨다면, 지구에 남은 몇 안 되는 최고의 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No.1. Asian Capitalist 류종현,
Omaha Buffett을 넘어설 Alpha Ryu와 자본의
기하적 장기증가를 함께할 마지막 기회의 제안.

(주)알파류딥브레인 투자설명회

류종현 대표이사 드림

*일정 : 4월 27일 토. 3시30분~5시
장소 : KTX서울역(기차역) 4층 대회의실*

[버크셔해서웨이를 넘어서서, (주)알파류딥브레인]

[가치투자 4.0버전의 글로벌 허브, 싱글래리티 투자자]

■ 가치투자 4.0 버전

- 가치투자 1.0 벤저민 그레이엄 : 가치보다 매우 싼 2~3류 기업
- 가치투자 2.0 워런 버핏 : 적정 가치의 현 성숙/성장기 1류 기업
- 가치투자 3.0 아크, 제벤베르겐, 소프트뱅크 등 : 미래성장을 기대하는 기술혁신 잠재 1류 기업
- 가치투자 4.0 알파류(류종현)딥브레인 : 미래 수익산업을 실제로 지배할 1류 혁신기업들을 비싸지 않게 투자
(미래의 현실을 정확히 통찰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 아시안(미래의 글로벌) 스마트 투자자본의 HUB, 싱글래리티 투자자

- 류종현의 가치투자 4.0 운용 통찰력/체계는 최고의 자본투자허브
- 단순하고 탁월한 주주경험인 주주총회와 온라인 간담회 연 1회
- 다양한 선도산업/글로벌 성장지역/글로벌 인구,문화,라이프 트렌드를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통합

※ 인간의 지성 한계까지 접근하기 위해, 사랑하는 모든 것들, 업무, 일상과 건강, 휴가 등 연단위 라이프사이클을 통합 및 단순화할 것임.

[부연설명, 류종현 & 미래확장 알파류 팀]

■ 복합성장가치 통찰투자자 류종현(가치투자 4.0) 스타일

- 복합투자스타일 : 워런 버핏 + 캐시 우드 + 존 템플턴 = 류종현
- 해설 : 버핏(경제적 해자, 경쟁우위)+우드(기술선도, 성장성)+템플턴(객관적 글로벌 비교, 상대적 성장가치) = 류종현

■ Where is Jonghyeon Ryu standing upon?

- 기존 성장 빅트렌드(산업과 기업, 서비스 등)와 내재된 인간의 욕구를 전제로, 항상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현실적 성장/독과점/수익 가능성을 통찰력 있게 판단해야 함.
- 선진국의 산업, 기술, 서비스 트렌드와 그것이 거대 인구의 개발도상국에 스며드는 방향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21세기의 20%가 지난 지금, 두 가지의 싱귤래리티가 진행 중

-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A.I.는 싱귤래리티 진행 중(거의 40억이 연결, 행성 스케일)
- 류종현 대표이사(현재 만 45세) 통찰력은 글로벌인베스트먼트 주요 플레이어들과 비교할 수 있고 일부 측면에서 추월할 정도로 싱귤래리티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조금밖에 안 왔으며 향후 60년간 류대표 통찰력의 기하급수적 증가분에 비교하면 현재의 싱귤래리티 과정도 아주 작은 수준의 변화에 불가함.

[(주)오마하류글로벌스노볼리서치 2019년 11월 설립]
 [(주)오마하류스노볼밸류 2021년 3월 설립],
 [(주)알파류인사이트4.0 2022년 5월 설립],
 [(주)알파류딥브레인 4.27.설명회/6.22.주주청약/~7.10.납입마감일]



주식투자 주제별 실제 수익률

- 1월, 은행권 가치투자(채권/사채/이동통신)
 - 11월말까지 100%이상 상승, 1월말까지 100%이상 상승
- 2월, 코스
 - 코스피 100지수 상승 2.5%, 코스닥 100지수 상승 3.5%
- 3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4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5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6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7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8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9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10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11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12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류종원 대표 코리아브크서에서웨이 투자설명회

주식투자 주제별 실제 수익률

- 1월, 은행권 가치투자(채권/사채/이동통신)
 - 11월말까지 100%이상 상승, 1월말까지 100%이상 상승
- 2월, 코스
 - 코스피 100지수 상승 2.5%, 코스닥 100지수 상승 3.5%
- 3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4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5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6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7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8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9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10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11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 12월, 미국형 가치투자
 - 미국형 가치투자(미국주식) 상승 10%, 1월말 100% 상승

2019 10 09

한국 버크셔해서웨이의 첫 번째 태동,
1호 (주)오마하류글로벌스노블리서치,
2호 (주)오마하류스노볼밸류,
3호 (주)알파류인사이트4.0의 비전과 현황

그리고 마지막 태동,
(주)알파류딥브레인(가칭, 4호)는 바로 지금!
Closing last door to Alpha Ryu(류종현)

[코리안 버크셔해서웨이, (주)알파류딤브레인]

- **집합적인 액티브펀드의 장기 평균세후수익률보다 인덱스 장기수익률이(3% 대) 더 높다.**
(펀드마다 실적은 순환하며, 매해 70~80% 펀드가 인덱스펀드보다 실적이 나쁘다)

그 이유는

- 1) 집단적 의사결정, 2) 대표 혹은 간판 포트폴리오 참조/복제
- 3) 무난한 평균을 위험한 도전보다 선호, 4) 비합리적인 수준의 분산.

※ 그러므로 인덱스펀드에서 차감되는 수수료를 감안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자체를 장기적으로 더 앞선다는 것은 생각보다 대단한 성과.

헤지펀드 : 수익무관 연초 기본수수료 2%+모든 수익률에 대한 성과수수료 20%

액티브 공모펀드 : 매년 차감수수료 2.5% 이상(이 이하 수수료는 병아리/열등 펀드매니저)

액티브 공모펀드와 헤지펀드 대부분이, 10년 수익률로 주식시장 하회하는 것이 진실!

- 한편, 워렌버핏도 추천한 전설적인 가치투자 펀드매니저 빌 루안 : **30년간 연평균 15.5%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들**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펀드설립 이래 4년간 누적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보다 성과가 저조했으며, 7년 차에 누적수익률이 지수를 능가했다. 그리고, 십수 년이 지나면서 점차 전설이 되었음. 누적수익률 기준으로 필립피셔는 4년차부터, 말프웬저는 7년차부터 주식시장을 이김.

[코리안 버크셔해서웨이, (주)알파류딤브레인]

- 알려지지 않은 애송이 버핏 조합 최초주주는 7명. (주유소 사업 실패. 버핏 100달러 투자)
※ 1차 조합 주주 7명의(가족+친구) 경우 4% 초과수익의 1/2이 수수료

- 버핏 2차~7차 조합(지역자산가 및 전국 고액투자자들)
※ 벤치마크 6%기준 초과수익의 1/3, 4%기준 초과수익의 1/4, 벤치마크 없이 모든 수익의 1/6 수수료 중 택1.

. 1950년대 젊은 미국 경제성장률이(종합주가지수 증가율) 성과수입의 기준 벤치마크.

- 향후 한국 장기 잠재성장률은 2019~2025년 1.5%, 2026~2035년 1.0% (KDI, 비교적 우호)
2020년대(상동 기간) 평균 1.2%, 2030년대(상동 기간) 평균 -0.4% (한국노동연구원)

. 모두 2018 말~2019 초 전망. 신종코로나 이후 OECD전망 장기잠재성장률 1.2%(40년 이내 추가하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종현 조합>은 다소 높은 BM 적용 1.2+[2.8]=4.0%(버핏 조합보다 약 2.8% 초과, 버핏 동일기준시 現 대한민국 BM 1.2~1.5%)

<주주이익 극대화 정책 1 : 버핏보다 합리적인 기여보상, 정책 2 : 전무후무 워터마크 정책 >
매년 기말기준 4.0% 수익률까지 성과수입 없고 초과분의 25%(이후 자본총계 1천억부터 초과분의 20%, 자본총계 5천억부터 15% 등으로 하향, 첨부1. 주주약정서 계약내용 기재)

※ 성과수입은 류대표 가치평가법인 로열티 형식으로 지불(비용절감. 4대보험/퇴직금 全無)

(2030년 이후 잠재성장률 0.4% 전후 찍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는 최고 선행투자기회)

※ 4%~10% 저조한 수익률 가정시 헤지펀드 수수료는 자그마치 2.8%~4%, 공모액티브펀드는 2.5%, 알파류딤브레인 수수료는 0.0%~1.5%

[코리안 버크셔해서웨이, (주)알파류딤브레인]

- 향후 초장기 글로벌 금융환경은(특히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혹독한 저성장기에 시달릴 것으로 추정됨. 워런버핏 버크셔해서웨이마저도 초기 수십년과 최근 십여년의 평균수익률은 너무나 차이가 날 정도. 미국 월가에서도 시장수익률을 이기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음.
 - **알파류/오마하류 통합투자그룹 1년 공식수익률은 1차년도 22%, 2차년도 23%, 3차년도 -40%, 4차년도 68%, 5차년도 3월21일 현재 43% 등 30년 장기성장의 서막이 열림.**
 - 조심 & 보수적 & 높은 확률로(초장기평균 20%~23%) 추정하면 법인펀드 자체 장기누적배수는 약 10년 5~7배 전후, 20년 25~50, 30년 200~300배 (성과수입 차감 순자본총계 기준)
 - (주)알파류딤브레인 원칙은 대부분 4차산업혁명 선도 글로벌 스노우볼 + 장기성장 최선호개도국(동남아시아 등) 스노우볼 투자. 일부자산 주식 헷지/역발상 투자.
- ※ 일체의 보유 및 매매 정보 비공개 (like 버핏조합, 모든 주주의 최고수익률을 위함)**

글로벌 최고의 장기 / 펀더멘털 2대 성장 동력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선별하지 못하는)

세계 성장산업 중
장기성장 기업

선진산업 (선진/개도국)
& 우량기업

성장지역/국가 중
장기성장 기업

이머징 성장산업
& 우량기업

<주주청약 최소 금액>

◎ 신규 주주 : 7천만원 이상(천만원 단위)

- 예컨대 7천만원 주주, 1억 8천만원 주주, 4억원 주주 등.

◎ 기존 주주(1,2,3호 법인)의 추가출자 : 3천만원 이상(이후 천만원 단위)

※ 신규 주주와 기존 주주의 이중 기준의 이유(차별이 아닙니다) :

투자목적 주주중심의 법인특성상, 주주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하고 주주수익/자본 극대화를 목표.
(소액주주들이 많으면, 자본은 적고 주주는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1,2,3,4호 법인은 통합주주총회, 통합간담회, 통합공지메일(모든 법인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동일)
등의 공식행사를 진행하므로, 기존 주주들이 4호 법인에 출자하면 통합법인(1,2,3,4호) 주주 수는
늘지 않음.

<주주청약인수 행사(필수참석, 주주확정-인수/청약/약정서 날인)>

- ◎ 필수참석 일시 : 6월 22일(토) 오후 1시30분~5시 중 자유롭게 아무 때나 방문 및 사인 후 퇴실
- ◎ 필수참석 장소 : KTX서울역(기차역) 4층 회의실(투자설명회 당일에 주주청약 회의실 번호 확정)
- ◎ 필수참석 준비물 : 주주는 신분증, 인감도장과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1통

혹은 신분증, 3개월 이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미성년자가 주주가 될 경우,

- 3개월 이내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부친과 모친의 인감증명서 각 1통과 각 인감도장 지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 법인이 주주가 될 경우,

- 대표가 올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 서류에 대리인위임장도 필요합니다.

※ 대리인을 보내실 경우 :

본인 참석이 우선이나, 부득이하게 대리인께서 오실 경우에는 미리 평가원 메일(omaharyu@kisve.co.kr,
research@kisve.co.kr)로 연락을 주셔서(평가원 실시간 확인),

①위 기본서류 ②대리인위임장 등을 대리인께서 지참하시면 됩니다.

<발기인 총회 후 주식대금납입(주주 자본 채무 확정)>

◎ 주식대금(주금) 납입/등기비 공지 :

A) 주금납입은행 지점 및 계좌를 6.22.(토) 주주청약일 당일에 안내 배부.

(법인등기 공과금은 법인계좌 생성 후 자본금에서 비용처리, 주식대금의 0.7% 전후)

◎ 주금납입 이체 기한 :

6월 24일(월)~7월 10일(수)까지가 주식대금납입 마감일.

반드시 6월 24일 이후 가능한 빨리 가까운 은행 지점을 통해 주금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7월 9일까지가 기한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주주확정일 이후에는 필참 일정은 없으니만큼 6월 22일 주주청약일 만큼은 필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통메일 omaharyu@kisve.co.kr
- 연구팀 research@kisve.co.kr

※ omaharyu 메일주소는 류종현 대표이사가 언론기자와 주주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직통메일입니다. 예비주주들의 투자법인 신설 참여 등에 대해서만 질의받습니다. 기타 운용/분석법인 대표로서, 종목상담이나 투자타이밍 등 일체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 본 발표자료의 무단전재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특별제안. 법인자금 대여를 통한 증여절세용 단독법인 설립

◎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증여절세용 단독법인 설립

- 예컨대 50억원의 증여절세용 단독법인을 가정. (자세한 금액요건은 첨부2 참조)

- 우선 부모의 법인에서 5억원보다 많은 금액을(최종 증여액이 5억원이 되도록 세무사와 협의) 부모의 개인자산으로 인출하고(급여, 배당 등), 이후 증여세를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 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함.

- 혹은 부모의 기존 개인금융자산으로 증여세 차감 후 자녀에게 최종 증여액이 5억원이 되도록 증여를 진행함.

■ 특별제안. 법인자금 대여를 통한 증여절세용 단독법인 설립

- 이후 자녀가 소유한 5억원으로 (주)알파류솔로1(가칭)를 류종현 대표, 담당 법무사 등과 함께 투자용 독립법인(컨설팅, 리서치업종 등 등록)으로 설립.
- 독립법인 설립등기 및 법인은행통장 개설완료 후 1주일 이내에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금융자산 중 45억원(상기 예를 든 50억원의 단독법인의 경우)을 자녀의 독립법인에 대여함.
- 이후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4.6%, 첨부 2 참조)을 대여법인에 매년 상환하면서 투자용 독립법인의 운용을 전적으로 류종현 대표가 맡고 매년 약정서에 따른 기여수수료를 받음.(첨부 2 참조)
- 장기적으로 45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내지 않고, 대여금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 속도로 자본이 증가함으로써, 운용기간에 따라서 대여한 45억원보다 수 배~수십배 자본증가가 기대됨.

※ 주주청약 준비물 및 주식대금 납입 등 절차는 개인투자조합법인과 동일하나, 일정은 단독법인 별로 별도 협의.

research@kisve.co.kr 메일주시면 연락드립니다.

**< 첨부1. 개인주주조합
투자법인용(4호 법인) 약정서 >**

< 초과이익 기여수수료에 대한 주주약정서-개인주주 투자법인용 >

주주_(이하 “갑”이라 함)과(와) (주)알파리뷰브레인(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초과이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갑이 주식양도시 아래 계약내용에 대해 자동으로 양수자가 인계받으며 이때 양수자는 새로운 계약주체자가(새로운 ‘갑’이) 된다.

1. 벤치마크

- 자본총계 증가율 벤치마크는 대한민국 장기 잠재성장률인 1.2%에 추가로 2.8%를 더한 4.0%이다.

2. 주주이익 극대화 1 : 류종현 대표이사 기여의 계단식 감속 보상

- 대표이사는 기업분석/가치평가에 기반하여 주주이익에 기여하며, 벤치마크 대비 초과분이 기여액이다.
- 법인설립비용 등을 제한 법인 설립연도의 기초 자본총계를(이하 자본총계는 모두 금융자산 평가손익을 반영한 원화 기준 자본총계를 의미함) 설립연도 다음 해의 기말 자본총계와 비교하고, 이후 매년 기말 자본총계를 기초 자본총계와 비교하여, 매년 벤치마크 4%를 초과하는 자본총계증가액을 대표이사의 기여액으로 한다. 자본총계 증가율이 벤치마크 4% 이하일 경우 대표이사의 기여액은 없다.
- 매년 기말 기준일에 대표이사 기여액의 25%를 (주)알파리뷰브레인으로부터 대표이사의 기업가치평가 관련 타법인 등에 지급하며, 지급 후 자본총계를 기초 자본총계로 한다.
-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첫째, 기초 자본총계가 1,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당해 기말부터 초과 기여액의 20%를 지급하며,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당해 기말부터 초과 기여액의 15%를 지급한다.

< 초과이익 기여수수료에 대한 주주약정서-개인주주 투자법인용 >

3. 주주이익 극대화 2 :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 정책

- 전년 기말 기준 자본총계가 감소한 이후 당해 기말 기준 자본총계가 증가할지라도,

단지 감소했던 전년 기말 자본총계 수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기초 자본총계 최고 금액과 비교하여

대표이사의 기여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면, 기초 자본총계가 300억 원이고 당해 기말 자본총계가 200억 원, 다음해 기말 자본총계가 400억 원일

경우, 400억 원이 된 기말의 대표이사 기여액은 200억 원이(400-200) 아니라 100억 원(400-300)이다.

※ 하이워터마크는 자본시장에서 주주이익을 우선시하는 매우 희소한 조건임.

-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2024년 월 일

(갑)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감도장)

(을) : (주)알파류딤브레인

대표자 : 류 종 현 (법인인감)

**< 첨부2. 법인자금 증여절세용
단독법인 제안 약정서 >**

※ 최소 계약 단위 40억원

< 이자액 초과 기여이익에 대한 주주약정서-증여절세 단독법인용 >

주주_(이하 “갑”이라 함)과(와) (주)알파류솔로1(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기여이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갑이 주식양도시 아래 계약내용에 대해 자동으로 양수자가 인계받으며 이때 양수자는 새로운 계약주체자가(새로운 ‘갑’이) 된다.

1. 대여금의 이자율

- 대여금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규정된 4.6%로 한다.

2. 주주이익 극대화 1 : 류종현 대표이사 기여의 계단식 감속 보상

- 대표이사는 기업분석/가치평가에 기반하여 주주이익에 기여한다.

- 법인설립비용 등을 제한 법인 설립연도의 기초 자본총계를(이하 자본총계는 모두 금융자산 평가손익을 반영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감한 후, 원화 기준 계좌잔고증명 자본총계를 의미함) 설립연도 후의 기말 자본총계와 비교하고,

이후 매년 기말 자본총계를 기초 자본총계와 비교하여, 자본총계증가액 전체를 향후 12년간 매년 대표이사의 기여액으로 한다.

- 매년 기말 기준일에 대표이사 기여액의 25%를 (주)알파류솔로1으로부터 대표이사의 기업가치평가 관련 타법인 등에 지급하며, 지급 후 자본총계를 기초 자본총계로 한다.

- 첫째, 법인설립연도 다음 연초를 기준 년으로 하여, 기준 년 이후 만 12년이 지난 해부터 벤치마크수익률 4%를 초과하는 자본총계증가액을 대표이사의 기여액으로 하며,

둘째, 기초 자본총계가 1,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당해 기말부터 초과 기여액의 20%를 지급하며,

셋째, 기초 자본총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당해 기말부터 초과 기여액의 15%를 지급한다.

< 이자액 초과 기여이익에 대한 주주약정서-증여절세 단독법인용 >

3. 주주이익 극대화 2 :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 정책

- 전년 기말 기준 자본총계가 감소한 이후 당해 기말 기준 자본총계가 증가할지라도,

단지 감소했던 전년 기말 자본총계 수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기초 자본총계 최고 금액과 비교하여

대표이사의 기여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면, 기초 자본총계가 300억 원이고 당해 기말 자본총계가 200억 원, 다음해 기말 자본총계가 400억 원일

경우, 400억 원이 된 기말의 대표이사 기여액은 200억 원이(400-200) 아니라 100억 원(400-300)이다.

※ 하이워터마크는 자본시장에서 주주이익을 우선시하는 매우 희소한 조건임.

오시는 길



회의실 오시는 길

2층 서부 출입구 옆 TMO(국군장병라운지)에서 복도 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층(회의실 층)으로 이동



기차역 서울역사 내에서 지하철역방향인 동부가 아니라 반대쪽 서부편의 승강기를 타고(2층이나 3층에서 탑승) 4층에서 내리면 됩니다.

